광주공항, 시장 선거 핫이슈로

정용화·장원섭·정찬용 "무안으로 이전해야"

강운태 "광주 국제선·무안 국제화물터미널"

윤난실 "군사공항 이전" 이병완 "의견 수렴"

광주공항 문제가 광주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으로 두 공항이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데다,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줄곧 호소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광주공항 존폐'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광주시장 후보들은 서울~광주까지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오는 2014년이면 국내선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광주공항(군 공항 포함)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또 광주공항 이전 후 공항부지 이용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심권 군용비행장으로 수많은 시민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양립으로 수익성 저하는 물론 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호남지역의 관문인 무안공항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오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서울 간 이동시간이 1시간30분대로 단축돼 광주공항의 존립 명분은 더욱 없어질 것"이라며 "공항 문제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모적인 갈등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공항이 이전되면 기아자동차 공장을 광주공항 부지로 이전시키고 100만대 생산라인 규모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소재업체를 대거 유치해 국내 최대 자동차 집적화 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광천동 기아차 공장부지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돼 개통된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강 후보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광주공항은 국제선 공항으로, 무안공항은 국제화물터미널 및 여객선 수리공항 등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강 후보 측은 "군사비행장은 광주공항 이전과 연계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정 후보와 같은 생각이다. 군 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광주공항 부지에는 대규모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공항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광주·전남 공동 활성화 차원에서 무안공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광주공항 이전 후 부지활용 방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군사공항 철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 용역에 따르면 군 공항으로 무안공항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광주공항 내 군사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우선 이전하고 광주공항은 에어택시 등 국내선 공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당 이병완 후보는 광주공항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광주공항은 국방부와 중앙정부, 지역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시장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무작정 광주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또는 공약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정찬용 후보는 광주공항과 군사공항, 탄약고를 동시에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광주공항 이전 후 공항부지와 탄약고 부지를 활용해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광주공항 해결은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소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합치면 무안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후보별 광주공항 정책

정당	후보	정책	대안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공항(군공항포함) 무안공항 이전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 이전
민주당	강운태	광주-국제선, 무안 - 국제화물터미널	KTX 완공이후 광주공항 이전 연계해 군공항 이전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공항(군공항포함) 무안공항이전	지역민 의견 수렴 통해 부지활용
진보신당	윤난실	군사공항, 무안공항 이전	광주공항 - 국내선, 무안공항 - 국제선
국민참여당	이병완	정부와 협의해 결정	시민의견 수렴
무소속	정찬용	광주공항(군공항포함) 무안공항 이전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광주·전남 시도지사 예비후보들과 시민·종교단체 대표들이 22일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서 영산강사업을 반대하는 서명문을 작성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 4대강 사업 반대"

장원섭·윤난실·정찬용·박웅두·강운태 시·도지사 후보 서명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전남 시·도지사 일부 후보들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철회를 위한 서약행사를 가졌다.

영산강 지키기 광주·전남 시민행동과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진보연대는 22일 오전 광주 YMCA에서 '2010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4대강 사업 반대 서약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 진보 신당 윤난실 후보, 무소속 정찬용 후보,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인 민노당 박웅두 후보가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김선기 정책특보가 대리 서명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병완 후보는 서약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강 후보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 특보는 "4대강 사업은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찬용 후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4대강 사업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난실 후보는 "4대강 살리기를 주장하며 4대강 죽이기에 동참하는 당을 선출하면 안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박웅두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죽산보 강둑에 있던 CC-TV는 도난방지용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보는 감시용 카메라였다"며 현 박준영 지사의 영산강 개발 정책을 비난했다.

서약서에는 '4대강 사업으로 남도의 젖줄 영산강이 심각한 위기에 있음을 우려하며, 4대강 사업의 한 축인 영산강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당선되면 영산강사업으로 편성된 '영산강사업 특별회계' 등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정부에게 영산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검사 접대' 선거 불똥 촉각

진실규명 촉구 속 "문제 검사 옷벗어야"

한나라당은 22일 검사들이 기업체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6·2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죄 판결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던 차에 파문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검사 퇴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당 핵심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악재로, 승부를 가를 부동표의 향배에 아주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 혹감을 드러냈고, 다른 관계자는 "집권여당이 정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서는 등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검찰의 조속한 사실규명을 주문했다.

나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며 "문제 검사는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와의 연결고리 끊기에 나선 셈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일부 공개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도 "단지 일부 인사의 문책에 그칠 게 아니라 검찰 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고 가세했다. 검사 출신 한 의원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해양위 시찰단

영산강 승촌보 방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현장시찰단(단장·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2일 영산강과 낙동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허 천 단장과 한나라당 장광근·정진섭·박상은·윤 영 의원으로 구성된 국토해양위 현장시찰단은 이날 영산강 승촌보 건설현장·낙동강 강정보 건설현장을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면서 환경오염과 재해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번엔 전남 선거문화 변화시키자"

김대식 한나라 전남지사 후보 본격 행보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대식 예비후보가 22일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전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후보 수락 기자회견을 하고 "한나라당이 역사에 유례가 없는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만큼 도민이 저를 후보로 뽑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생과 현안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발목 잡기에 급급하는 등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민주당 일방독주인 전남의 선거문화를 변화시키자"고 역설했다.

그는 "여수엑스포와 F1대회, 순천정원박람회, 무안공항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이 너무 많다"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박준영 민주당 후보와의 정책연대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지역을 동부와 서부·중부 등 삼각 권역으로 나누는 '트라이앵글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발전의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삼각 권역의 주요 공약으로는 ▲무안공항 활성화 ▲기업유치 ▲동부권 도청 2청사 건립 ▲제2의 포항공대 유치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오는 29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강당에서 선대위 발족식과 필승결의대회를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선거차량

음향차량,LED차량(1.5t,2.5t,5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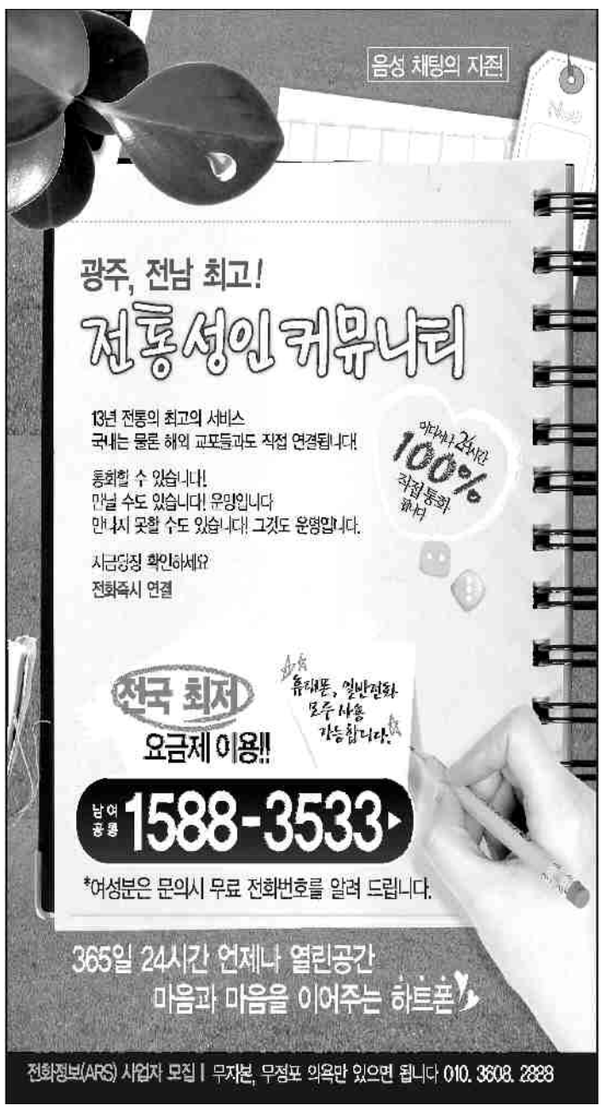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I.C 입구)
▷ 동신대 ~ 나주I.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함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 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벽진동 - 창고용지/500평정도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삼거동 - 2만3천평/상담후결정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접
◉중흥동 - 200평/대로접(100%대출가) 상담후결정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접(100%대출가)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접(100%대출가)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 /대로접(100%대출가)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광산구 신용동 - 1500평/50만원 도로접 (물류창고 적합)
◉만평 풍암지구 수완지구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 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서구청 맞은편(1층 • 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